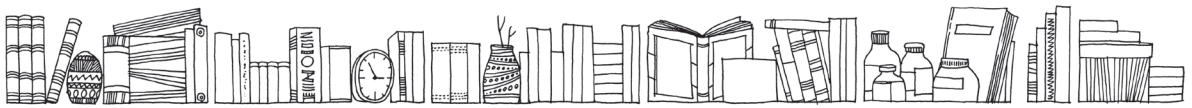




추석날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쌀로 떡을 빻어 먹고 막걸리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추석을 맞아 이번 가을 호 표지 사진도 한가위 분위기 좀 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먹어도 배고팠던 간디인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할머니 집 가서 송편과 전 잔뜩 먹고 통통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추석이라 전국이 들떠 있어도 이런 명절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조차도 저 두 친구의 표정처럼, 추석 밤하늘의 달처럼 밝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김민석(4학년)



차례

여는 글 2 편집장 일 안한다

1부 반가워요 후원인 5 포도맨이 돌아왔다!

배움 속으로 8 나를 찾는 여행 떠나실래요?

우리끼리 11 똥's 어드벤처

2부 특집 16 집 나간 엄마를 찾습니다

3부 생활관 이야기 24 네일아트 좀 하는 마님들

화제의 인물 30 사랑, 개나 쥐 버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간썰소 40 간디인 스케줄러 / 초딩 민석이의 일기

기자 후기 46 기자 후기



그림 • 미스터김



편집장 일 안한다

김민석 편집장(4학년)

2학기 생활한 지 2주쯤 됐을 때 저는 학교를 나와 무작정 집에 갔습니다. 일상다반사 편집장, 학생회 행사부 장관, 여러 수업들, 친구들을 학교에 놔두고 무작정 집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일일이 다 쓸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너무 숨막힐 정도로 답답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과연 돌아오는 일주일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란 의문과 함께 일주일을 못 버티고 숨이 막혀 정신이 해까닥 돌 것 같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견디고 버티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도망치듯이 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제 주변 사람들도 저의 뜬금없는 도피에 다들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있던 놈이 왜 갑자기 집에 갔지?’ 심지어 제 멘토 반 선생님도 제가 집에 갈 정도로 힘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는지 그때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저는 정말 폭 쉬었습니다. 듣기 싫은 수업을 켜고 간디인들이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나는 자고, 만날 집에서 영화 보고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편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다반사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부재로 가을 호 작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편집장인 내가 없어서 기자들이 회의도 안하고 취재도 안하고 기사도 안 쓰고 모든 게 멈춰 있으면 어떡하지?’란 걱정 때문에 저는 목요일 일상다반사 점심 회의에 맞춰서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

들어가서 브리핑을 듣는데, 저의 걱정이 정말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부를 맡았던 손채은, 이한슬, 최문형 기자는 ‘भाग워요 후원인’ 인터뷰를 위해 청주까지 갔다 왔고, 그곳에서 후원인분께 맛있는 순두부찌개도 얻어먹고 집나 게 재밌는 총 게임을 해서 2,500원이나 썼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손채은 기자는 제가 없던 사이 ‘배움 속으로’ 수업 참관까지 마치고 글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짬밥, 깔끔한 일처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한슬 기자도 ‘우리끼리’를 쓰면서 중간에 주제가 바뀌었는데도 금방 감을 잡고(마감을 4일 남겨두고!) 재미난 똥 푸기 기사를 써 줬습니다. 최문형 사진 기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 했습니다. 무려 제일 첫 번째로 마감을 지켜 준 기자입니다! 상을 주고 싶네요.

사실 저는 2부(덕산 주변 모임 특집 기사)를 제일 많이 걱정했습니다. 2부엔 김예림, 이한결, 최유경 글 기자와 김담 사진 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팀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세 글 기자 모두 2부 특집 기사를 한 번씩 써 봐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또다시 2부를 맡게 돼서 절망에 빠져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2부 팀 기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생각했는지 사이가 많이 서먹서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아무 기대 없이 ‘그래, 난 너희가 아무것도 안했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란 마인드로 브리핑을 듣는데, 이렇

수가! 이미 모든 취재를 마쳤다고 하지 뭐니까! ‘2부가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잘할 거면서 그전엔 왜 그렇게 글쓰기 싫다고, 취재하기 싫다고 난리를 쳤는지 갑자기 꽤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고맙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없어서 제일 황당했을 팀은 3부였을 겁니다. 기자가 적어 편집장이 3부에 들어가 화제의 인물을 맡았는데, 제가 집에 가 버려서 화보를 박성현 사진 기자 혼자서 찍어야 했습니다. 소품은 나한테 맡기라고 큰소리쳤는데 소품도 없고 저도 없어서 박성현 사진 기자가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팀이었던 이예슬 기자가 소품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제가 없는 대신 제 역할을 해 줬습니다. 또 박성현 사진 기자도 2년간의 짬밥, 사진 기자 중 대뽕이라서 노련미를 살려 혼자서 척척 멋진 화보를 찍어 줬습니다.(그 관계로 화보 주인공이었던 김태은 양이 많이 고생했다고 하네요. -‘화제의 인물’ 인터뷰를 참고해 주세요.) 저 없이도 화보를 너무 잘 찍어서 오히려 내가 있었음 누가 될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기사도 도와주며 자신의 기사도 잘 써 준 이예슬 기자도 정말 대단합니다.

삽화 디자인 이영경, 이가원 기자 역시 자신의 역할을 알아서 해 줬습니다. ‘간디인 갤러리’도 미리 정하고 스케줄러 일정도 알아서 모으고,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일의 센스 또한 대단한 자매입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정말 저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브리핑을 듣고, 저는 일상다반사에서 편집장이란 존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괜한 걱정을 한 제가 참 한심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자들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편집장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해낼 수 있는 건 방학마다 뻥센 연수로 훈련시킨 기자들의 힘과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짬밥과 내공, 오랜 일상다반사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 오고 나서 저는 학교생활이 조금은 편찮아졌습니다. 답답함도 사라지고 집에서 학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붙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서로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이 지긋지긋하고 무의미해지셨다면 한 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곳이 노답인지 아닌지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저의 소중한사람들이 보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감정이 또 언제 식을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 후원인, 간디인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하거나 답답하다 싶으면 아무 고민 말고 자신의 맡은 일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뛰쳐나와 보십시오. 아! 사표를 쓰거나 자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많은 고민 끝에 하고, 저 같은 도피는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애깁니다. 제 말 듣고 회사나 학교 나오시면 전 책임 안 집니다. 제 말이 길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가을 호 재밌게 읽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상다반사에 새로운 신입 기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두 명 다 남자라서 여성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우제(1학년) 글 기자와 김재하(1학년) 삽화 기자입니다. 선배 기자들처럼 오래 오래 일상다반사와 함께하여 베테랑이 되길...☘

1부



포도맨? 이젠 오디사나이가 된 후원인.

당신은 동그라미인가요, 네몬가요, 세몬가요, 에슨가요?

덕산면 제천간디학교에 위치한 생태화장실에서 지내는 똥의 얘기.

당신은 여태까지 똥이 어떻게 퍼 왔는지 아시나요?

손채은 기자(5학년), 이한솔 기자(3학년), 최문형 사진기자(2학년)



포도맨이 돌아왔다!!

포도연구소 이재웅 박사. 시작부터 남다른다. '포도연구소'부터 기자들의 호기심을 발동시켰는데요, 포도연구소에서 일하셨던 이재웅 씨를 만나러 청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포도맨 이재웅 씨의 이야기, 한 번 들어 볼까요?

Q. 간디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옥천군 청성에 포도연구소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근무할 때 그 옆에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 있는 정자가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정자를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 봤더니 그분 아들이 고등학교를 간디학교를 갔는데, 정자를 연구해서 못을 안 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직접 집에다 정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디학교 알게 됐지. 어디냐고 물어 봤더니 옛날에는 산청에밖에 없었는데, 제천에 또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 나도 딸만 셋 있거든.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둘째딸이 중학교 3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우리 애들도 간디학교를 한 번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간디학교에 가 봤어.

Q. 포도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포도연구소는 포도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 만든 걸 어떻게 맛있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가, 연구하는 곳이야.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Q. 그럼,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A. 나는 포도연구소랑 비슷하게 과일 연구 중이야. 지금은 오디를 연구하고 있어.

Q. 농업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A. 맨 처음엔 이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데 햇빛 쨍쨍한데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기쁘겠어?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제일 소중한 일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한 끼도 안 먹고는 못 살잖아. 누가 그랬는데, 가장 소중한 일은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거래. 밥을 안 먹고 못 사는 거니까 음식을 만드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지 않아?



농사가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해. 나는 농업연구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 그래서 집에서 직접 포도농사도 지어. 주말에만.

Q.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포도가 가장 맛있나요?

A. 시리아, 터키, 이란 등등이 포도의 고향이지.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인데, 그쪽은 서아시아잖아. 서아시아가 포도의 원산지야. 왜냐하면 비가 안 와. 열추사막이야. 포도는 원래 사막에서 자라는 거야. 비가 많이 오면 과일은 맛이 없어. 진짜 맛있는 과일은 사막에서 자란 과일이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와도 엄청 많이 와. 그래서 과일을 재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벼를 재배하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포도에 줄을 매고 하지만, 그 나라는 그냥 심어 놓고 자라는 거 따먹고.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맛있게 키우려고 비닐하우스 쳐서 비를 안 맞게 만들고, 땅에도 비닐하우스를 깔아서 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서 그

나마 우리나라 포도가 맛있는 거야. 인위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거지.

Q. 학교에 오신 적이 있나요?

A. 학교에 방문의 날이 있더라고. 애들이 간다 그러면 보내려고 한 번 데리고 갔었지. 둘째딸이 기숙사는 좋다고 하더라고. 간디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

Q. 소식지에 특별히 실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A. 내 생각인데, 졸업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저희 다음 호에 나올 예정입니다.) 벌써 다 나온 거네(웃음).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소식지니까 선생님 글, 아이들이 쓴 글을 많이 실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공유하는 거니까.



Q.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저번 봄 호에서 자전거에 대해 쓴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설문조사를 하고,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건 간디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내용이지.

Q. 생각하고 있는 간디학교의 모습이 있나요?

A.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야. 뭐든지 다. 그래서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그건 내 인생이라고 보는 거지. 간디학교라면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선생님이 만드는 학교니까 같은 마음을 먹고 부모님도 보내셨을 거고, 학생들도 내가 내 인생을 직접 디자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내에서 나의 인생을 직접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생각해도 그런 인생이 제일 멋진 것 같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Q. 마지막으로,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 드려요!

A. 나를 위한 인생보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을 살 때 진짜 행복을 느껴. 간디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을. 그러려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하지. 간디인이 라면 진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을 살 만한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웃음).

너무 반갑게 맞아 주신 이재웅 박사님! 인터뷰에 쿨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간디학교에서 뵈요~☺

나를 찾는 여행 떠나실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에스.’

2학기가 시작되고 복작복작하면서도 가을 물이 들어 여유로운 학교에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간디대학원에서 인턴 쌤으로 오신 정희 쌤이신데요,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얼 하는지 뻔(feel)이 오는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각자의 기질을 알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수업이라고 하는데, 여학생 4명과 정희 쌤의 수업 현장에도 가 보고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어떤 기질인지 알아보시죠.

수요일 1교시, 2층 복도 맨 끝 교실인 과학실에선 고등부 여학생 4명이 모여 정희 쌤 말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청소를 하고 난 후 늦게 들어간 수업에선 막 ‘동그라미’ 기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동그라미는 다혈질이 있고 칭찬을 좋아해. 우리나라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말을 들곤 딱 감이 잡힐 것 같은데, 바로 자신의 기질을 알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수업이었다.

처음 수업시간엔 각자의 기질 테스트를 통해 기질을 알고 다음부터 각 기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매마침 청강한 수업에선 동그라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길 나누었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에스(S)로 나뉜다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이 어떤 기질인지 궁금해

물어 보았다.

하린(5학년): 난 세모야. 세모는 완전 나 같아. 일단 미래지향적이라. 목표에 집중하고 리더십이 조금 있고 이기적이라....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완전 나 같지.

기온(4학년):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다혈질이라. 사랑이 많고 정도 많고. 외향적이면서 귀가 얇다고 해. 모든 게 맞는 거 같진 않지만, 4가지 중에서 뽑으라면 동그라미가 가장 가까운 거 같아.

시은(4학년): 난 세모가 나왔어. 세모는 일을 좋아하고 목표 지향적이라. 또 뭐가 있었지.... 하린 언니도 세모야. 나 같다고 생각했어.

성민(4학년): 난 S! 천재형! 난 천재야. 구체적으론 자유롭고 예술적 감각과 표현이 풍부하대. 옹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 S가 뭔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



하면 생각할수록 나랑 맞는 거 같아.

안타깝게도 네모는 없었지만 정말 듣고 보니 각 친구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비록 청강생이란 명분으로 들어간 수업이었지만 기질 테스트를 해 봤다. 작은 네모, 큰 네모가 겹쳐진 그림 위에 자신이 원하는 도형을 3개, 나머지 1개씩 원하는 위치에 그려 넣으면 되었다. 개중 동그라미가 가장 마음에 들어,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 넣었는데 이걸 통해서 기질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각 도형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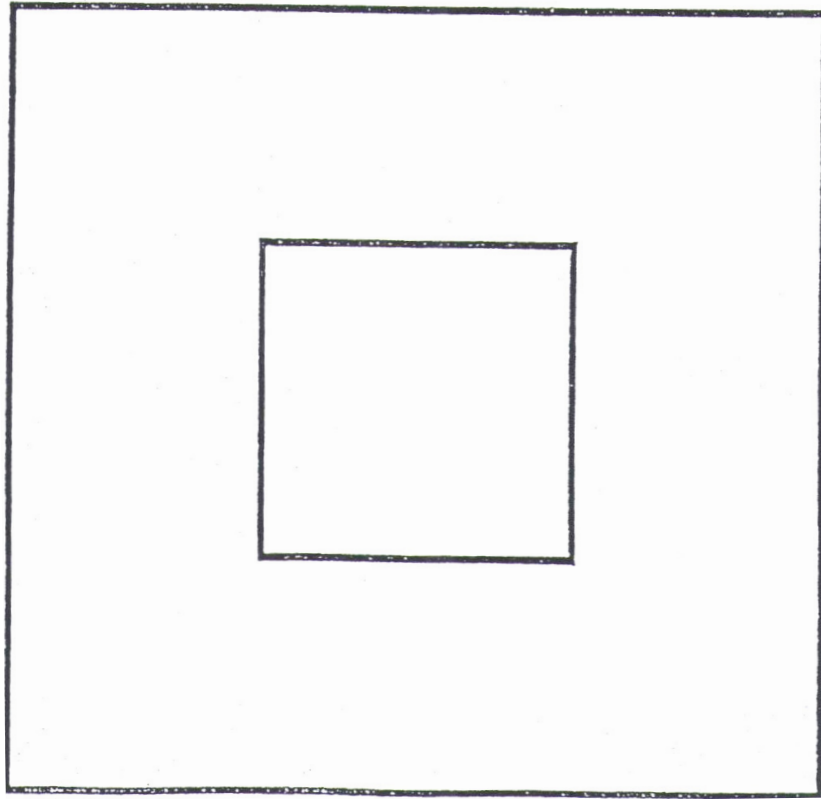
필자는 정희 쌤과 얘길 나눈 후, 정확히는 동그라미

네모 기질이라고 들었는데 동그라미 네모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벼락치기를 잘한다고 했다. 남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오지랖이 넓고 모든 분야에 탁월하다고 한다. 팔방미인이면서 친절하고 인기까지! (그 외에도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담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잘 설명하는 것 같다. 히히.) 굉장히 뜨끔한 상황도 많았다.

우리 학교엔 없었던 수업이 개설되었고 그 첫 수업을 들은 친구 하린이한테 궁금증에 점심을 먹으며 수업이 어떠냐고 물어 보니, 양파를 골라내던(양파를 무척 싫어한다.) 하린이는 수업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당히 기말쯤엔 자신이 우리의 기질을 봐 준다고 했었다. 부디, 잘 배우고 와서 상세하게 기질에 대해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똥's 어드벤처



· 여러분도 한 번 자신의 기질이 어떤 건지 알아보세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나의 도형을 3개 그려 넣고 나머지 도형을 하나씩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3개를 그려 넣은 도형이 곧바로 당신의 기질이 됩니다! ✂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S=우울질

○: 우리나라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뒤끝이 없다. 단순하고 친구를 좋아한다.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표현하는 유형.

□: 원칙주의자. 성실하면서도 느리고 마무리에 강하다. 일을 잘하며 참모형.

귀찮은 걸 싫어하면서 전통이나 효, 법을 중요시한다.

△: 목표를 향한 사람. 감성보단 이성을 따르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독불장군. 목표 중심적이다.

S: 천재형. 사고 분석형이며 창의력 있다. 상처를 잘 입고 우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이기 때문.

4차원이면서 뒤끝이 길다.

○(동그라미)나 △(세모)는 외향적이라 하고, □(네모)와 S(에스)는 내향적이라 한다.

*이 기사는 픽션이며, 제천간디학교 똥 푸기의 역사를 설명한 기사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제천간디학교에는 똥똥이가 살고 있어요! 생태화장실 출신 똥똥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태화장실을 주름잡고 있는데요, 앗! 지금 똥똥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똥똥이의 인생사, 한 번 들어 볼까요?

반가워! 나는 똥똥이라고 해. 원래 이름은 똥드래곤 인데, 다들 똥똥이라고 부르지. 뭐?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사실 별거 없어. 다른 똥들보다는 훨씬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뭐. 정 듣고 싶다면 들려 줄게.

나는 2005년에 태어났어. 너무 오래전이었어서 이젠 어떤 놈이 나를 쫓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 어쨌든, 내가 태어났을 땐 바닥에 선배 똥들이 득실거렸어. 심지어 그땐 똥통도 없었고. 나는 그때 애기 똥이어서 어른 똥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닫혀 있던 문이 열렸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햇빛과 이 세상을 보는데, 너무 신기해서 감탄만 했지. 똥을 푸려고 문을 열었던 것도 몰랐어. 그냥 뉘 놓고 세상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웬 삼이 나를 들어올리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같이 삼에 들어올려진 어떤 할아버지

가 ‘똥똥아,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 세상 더 맛깔나게 살아 보고, 그때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어. 그렇게 그 할아버지는 문 밖으로 사라지셨어. 바닥으로 떨어진 나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기절했어. 나는 그 날 똥 푸기가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원래 우리 똥들 사이에서 똥 푸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마음껏 인생 다 살고, 떠날 때 떠나는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시기엔 내가 너무 어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안타까우셨나 봐. 나중에 나도 늙어서 이 똥통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멋지게 가고 싶어.

어쨌든, 난 그렇게 기절했고, 눈을 뜨고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더라. 원래는 똥통이 없어서 똥을 싸면 바닥에 쌓이고, 그걸 삼으로 쫓는데 이젠 아니더라. 똥통이 생겨서 삼도 필요 없어졌고, 그냥 똥통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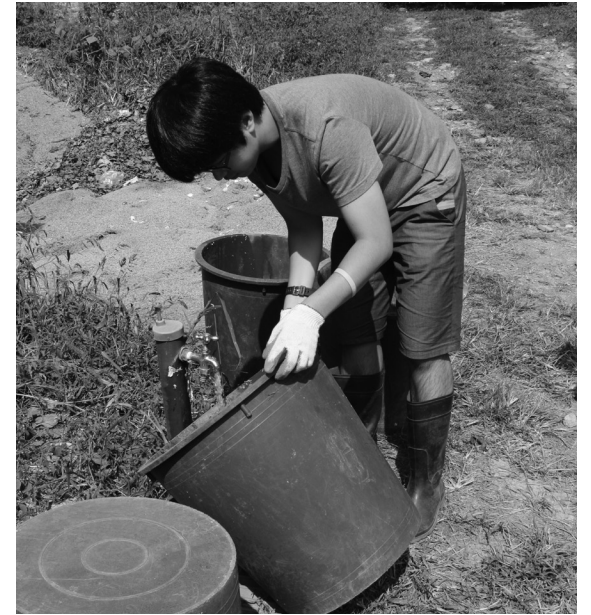
고 비료장으로 가서 버리면 되니까. 똥통에 있는 똥들은 전부 다 내 후배였어.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나보다 어렸지 뭐야.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문이 열리고, 웬 키 큰 남정네¹⁾ 여러 명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런지 정신없이 숨었지.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정네들이 내 새끼들을 흑돼지들 밥으로 주는 거야! 생태화장실 바로 옆에 돼지우리가 있었는데, 고깃들이 먹는 건 아주 복스럽게 잘 먹더라. 너무 슬퍼서 구석에 박혀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울었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똥을 푸러 오는 거야! 그 남정네들이. 알고 보니 매주 목요일에 똥을 푸는 거였어. 나는 또 날렵하게 잘 숨으니까 그렇게 몇 년을 죽지 않고 살았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15년이 되었어. 나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맛깔나게 살라고 했던 명언을 잊지 않고 인생 최대의 모험을 했지. 바로 똥통을 탈출하는 거였어!! 내가 또 재빠르잖아. 그래서 도망치는

건 자신 있었지. 그래서 엄청난 결심을 하고 똥통을 탈출했어. 생태화장실 바로 앞에 강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더라.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서 회의내용을 살짝 엿들었지. 마침 딱 똥 얘기를 하더라고. 들어 보니까 농사작업장이 없어져서 똥을 풀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걸 학교 규칙을 어겨서 책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신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한 학기를 열심히 도망치면서 살았지. 그래서 살도 엄청 많이 빠졌어. 원래 22g이었는데 17g이야. 그러던 중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 원래 책임 수행자들이 똥을 푸는 거였잖아, 그런데 똥 푸기가 너무 별척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학교 짱들이²⁾ 회의를 했어. 나는 도망치느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푸길 바랐는데, 갑자기 전교생 제비뽑기를 해서 매일매일 똥 푸는 당번을 정한다는 거야! 매일매일!! 간간하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잖아!! 근데 뭐 내가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래서 2학기부터 가족회의 때



제비뽑기를 해서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똥을 푸고 있어. 보니까 하루에 남자 여자 각각 한 명씩 하던데, 남녀니까 흐트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 커풀 이어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물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전교생을 만나니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웬지 친해진 느낌도 든달까? 사실 전교생이 이렇게 똥 푸는 일은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야. 뭐? 도망안 치냐고? 도망치기는 하는데, 내가 다른 똥들이랑은 다르게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았잖아. 별일이 다 있었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거름이 되려고. 돼지? 아, 돼지는 이제 없어. 왜냐하면 작년 김장하는 날에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 어흥!!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돼지우리 터에다 똥을 버리지. 어쨌든, 나는 곧 좋은 거름이 될 예정이야. 이제 곧 떠나는데, 이런 내 인생사를 한 명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터뷰 허락한 거니까 잘 써 줘야 돼! 그리고 나 자진해서 거름 될 거니까 오고 싶으면 와. 작별 인사해 달란 말이야! 나 인간이랑 이렇게 오래 대화한 것도 처음이야. 진짜 살다 살다 별걸 다하네. 어쨌든, 인터뷰



재미있었어. 내 이야기 잘 써 주고, 화요일에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나 빼칠 거야. 흥!!!!

똥똥이의 인생사 잘 들으셨나요? 이 친구가 왈가닥이라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똥똥이는 지난주에 비료장으로 갔어요. 이제 점점 거름이 되어가고 있겠죠. 여러분도 비료장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 한 번씩만 해 주면 똥똥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똥똥아!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

1) 농사작업장. 매주 목요일날 똥을 폈다. 2015년에 없어졌다.
2) 집행부(학생자치기구)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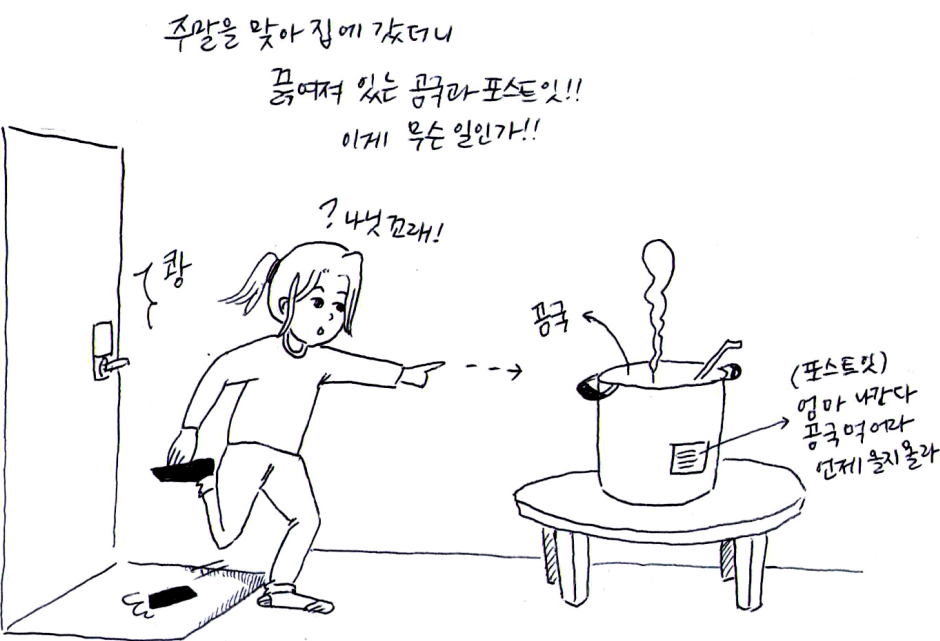
집 나간 엄마를 찾습니다



사진기자 김담, 기자 이한결, 최유경, 김예림

집 나간 엄마를 찾습니다

드디어 주말! 엄마와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말소리와 요리하는 소리를 기대했던 집 안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하다. 들어선 집 안 식탁에 놓여 있는 쪽지와 함께 한 술 가득 담긴 곰국만이 엄마의 빈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쪽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엄마 모임 때문에 나간다. 곰국 끓여 놔주니까 밥은 알아서 먹어라. 정 엄마 찾고 싶으면 덕산에 많은 모임들 다니면서 인터뷰해 보렴. 인터뷰 한 어른들이 엄마가 어땠는지 알려 줄 거야.’

이게 몇 번째인지, 덕산에 넘쳐나는 모임들 때문에 엄마는 특하면 나가 있기 일쑤였다. 물론 모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딸이 집에 왔으면 좀 맛있는 것도 차려 주고 하라고! 이래로는 진짜 못 참는다... 오늘은 엄마가 준 지령도 다 하고 엄마도 찾아오고 말겠어.

1. 엄마가 다니는 모임은 약 6개, 첫 번째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경당부터 가야겠다. 경당은 우리 학교에도 있는 동아리다. 24반 무예를 배우는 동아리인데, 옛날 고구려 시대의 민간 교육 훈련기관의 이름을 따 ‘경당’이라고 한다고 들었다. 학교에 다시 도착하니 저기 희석 쌤과 함께 열심히 검을 휘두르시는 아주머니들이 보인다. 어, 익숙한 얼굴인 철수 쌤도 보이네! 인사를 하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역시나 엄마는 안



보인다. 그래도 온 김에 여기서 엄마가 준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희석 쌤께 이것저것 여쭙 봤다. 희석 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쌍검이고,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경당에서 하는 것보단 하체 위주의 운동으로 몸을 푼다고 하셨다. 작년 10월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으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모임이다. 희석 쌤이 쉬는 시간을 주셔도 계속 쌤께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고 연습하시는 모습이 엄청 열정적이었다.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시던 아주머니께 다가가 여러 가지를 여쭙어 봤다. 아주머니께선 항상 경당이 하고 싶으셔서 희석 쌤에게 가르쳐 달라고 졸랐는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다고 하셨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하고 나니 확실히 안 되던 동작들도 되고 몸이 굳었던 것도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으셨다고 한다. 경당 모임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경당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는 거라고 하신다. 인터뷰를 마치고 곧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

에 들며 있었다. 막 인터뷰를 마친 아주머니께서 덕산에 있는 간디 문화 센터에서 풍물 모임이 시작될 텐데, 그곳에 가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 다음 모임으로 가 보자!

2.

이번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간디 문화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익숙한 얼굴인 손 쌤이 계셨다. 손 쌤은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 궁금해 하며 기다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문화센터 도서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모임의 정체는 바로 마을 부녀회 풍물패였다. 이번 모임 시간에는 사람들이 4-5명뿐이었지만 원래 전체 인원수는 15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손 쌤은 풍물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셨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아주머니들은 악보를 보며 열심히 장구를 배우셨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도 역시 우리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하며 이곳을 나가려다 아주머니들을



인터뷰해야 해야 한다는 엄마의 지령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장구소리를 듣고 주체할 수 없는 흥이 발목을 잡았다. 손 샘이 먼저 시범을 보여 주시고 아주머니들은 손 샘이 연주한 장단을 따라 하는 식이다. 장구를 못 치는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머니들은 가뿐히 손 샘의 연주를 따라하고 있었다. 뉘 놓고 아주머니의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자 아주머니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 보았다.

이 풍물패의 이름은 널리리야, 생긴 지는 1년 반 정도라고 한다. 덕산에는 15년 전에도 부녀회 풍물패가 있었는데, 부녀회 풍물패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4년 만에 사라졌다고 한다. 부녀회 풍물패가 사라지고 난 후 덕산에 아주머니들은 풍물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 부녀회 풍물패 다음에 생긴 남성 풍물패에 들어가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지만 금방 나가 버렸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풍물을 배우고 싶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널리리야가 생기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들은 풍물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흥을 맘껏 배출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했다.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공연도 하고 합숙 훈련도 하는 등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계신다. 아주머니들의 넘치는 흥 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아주머니는 이곳으로 귀농하고 나서 들어간 첫 모임이 이 풍물패인데 덕분에 마을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였고, 귀농하기 전 풍물을 배웠다가 귀농하고 나서도 풍물을 다시 배우고 싶어 바쁜 스케줄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아주머니도 계셨다.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가 한숨 돌리고 다음 질문을 하려 하는데, 인터뷰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센터 도서관은 아주머니들 수다로 가득 차고 그 안에 둘러싸인 나는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끔끔대고 있었다. 열기가 조금씩 식어 가자 슬며시 아주머니들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었고, 아주머니들은 오늘 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하면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 하셨다. 집 나간 우리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엄마 찾아 삼만 리다.



3.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아 다시 문화센터로 갔다. 들어가 보니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 모임에 정체는 바로 동양고전인문학 모임이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내 옆에는 풍물모임에서 봤던 손 샘이 계셨고, 재학생인 시은(12학번), 별(10학번) 어머니들도 계셨다. 그리고 칠판 앞엔 동양고전 인문학 선생님인 졸업생 현정(09학번) 아버지(이하 강사님)가 계셨다. 강의가 시작되자 나도 얄전히 강좌를 지켜보았다. 동양철학은 공자가 써 낸 논어를 공부하는 강의였고, 강사님이 먼저 논어를 쓴 공자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 그 다음엔 논어에 있는 문장을 한자로 보여 주신 다음 수강생들에게 문장을 따라 읽게 하고 문장을 해석해 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강사님은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만 수업을 진행하셨다. 어릴 적 <마법천자문>을 읽을 때만 보던 한자들이 이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멍하

니 칠판만 보고 있었다. 집에 가면 <마법천자문> 시리즈를 다시 정독해야겠다. 나는 정신을 놓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강사님의 말을 들으며 논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어려운 한자를 또박또박 읽고 그 뜻을 해석해 나가는 걸 보니 정말 멋있었다. 강의 중반쯤 강사님이 쉬는 시간을 주셨고, 이번에도 모두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 보았다. 동양고전 인문학 모임은 평소 동양고전에 박식하신 강사님이 문화센터에 제안으로 강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시간 날 때 틈틈이 강의를 여시다가 강의 내용이 논어를 공부하는 강의로 넘어가면서 지금 동양철학 멤버가 모이게 된 것이다.

손 샘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 삶 속엔 유교사상이 많이 연관돼 있는데, 정작 유교사상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항상 안타까웠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다 마을에서 동양고전 인문학 강의를 열리게 되자 좋은 기회다 싶어 모임에 들어왔다고 한다.

시은 어머니는 강의를 듣기 전에는 나름 한자에 대



해 박식하다고 생각했지만, 강의를 듣고 나니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셨다. 또 배움의 길이란 끝이 없는 법, 강사님도 이번 기회에 수강생들과 같이 배워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신다. 순간 배움을 찾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내 생활이 부끄러워졌다. <마법천자문>으로 한자 실력을 갈고 닦아 언젠간 이런 강의를 듣고 말겠다. 갑작스럽게 얻은 교훈을 뒤로 하고 강사님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어 보았다. 강사님은 간디학교 식당에서 열리는 마을 모임에 들어가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하셨다. 이제는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걸까. 곰국만 끓여 놓고 사라진 우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좀 집으로 들어와.

4.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갈 모임은 ‘꽃다방’이라는 다도 모임이다. 차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신 진우(01학번) 어머니(이하 강사님)가 다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차의 기본 이론부터 차를 우리는 방법까지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언제였던가, 엄마가 커다란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기에 뛰나고 물었더니 자랑스럽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컵과 주전자 같은 것들을 꺼내 보였던 게 생각난다. 후, 이번엔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디학교 식당으로 향했다.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뒤로 한복을 입으신 강사님이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쾌활하게 걸어오셨다. 하지만 한복은 식당에 펼쳐진 풍경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길을 사로잡은 예쁜 다도 잔들과, 인원이 열 명이 넘는 모임의 규모란! 여태 봤던 모임들 중 가장 규모가 커 보였고, 그 중엔 자주 뵈는 대림마트 아주머니, 흥원철물점 아주머니"와 회석 샘 사모님이신 가영 샘, 상현 샘 사모님이신 윤주 샘, 식당 샘이신 은아 샘도 보였다. 또 풍물패에서 뵈었던 아주머니도 계신 걸 보니 우리 엄마처럼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다.

모임이 시작되고, 난 엄마의 행방에 대해 물어 볼 틈도 없이 구석에 쭈그려져서 모임을 지켜보게 되었다. 강사님은 다도 세트에 있는 다관(차잎을 우려내는 그릇), 찻잔(차를 따라 마실 때 쓰는 그릇), 퇴수기(찻잔을 씻은 물을 버리는 그릇) 등 도구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명칭을 다 익히고 나서는 뜨거운 물을 따라 차를 우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또 물을 따를 때 예쁜 소리가 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알려 주셨다. 곧



은 자세로 집중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니 차에 대해 배우고 싶은 의지가 정말 커 보였다. 강사님은 요즘 사람들이 다도를 접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격식 있고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유용하고 좋으면서 다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마지막 수업 때는 가족들을 불러서 차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 우와... 엄마가 괜히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나 같아도 집에서 딸 밥 차려 주는 것보다는 이런 모임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이전에 간디학교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1기 모임이 이뤄졌고, 지금은 마을 주민 분들 중심으로 함께 2기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을 주민 분들은 교류가 잘 없었는데 꽃다방을 계기로 모이게 되고, 가까이 살지만 와 본 적 없던 학교에 실제로 와 보니 좋다고 하셨단다. 찻잔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꾸벅꾸벅 잠이 올 때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다도에 대해 배우시는 아주머니들이 대단해 보여 이

것저것 여쭙 봤더니, 원래부터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다. 또, 알고 보니 차의 종류는 나무가 아니라 가공법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 엄마를 찾아다녔더니 덤으로 푹푹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은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셨다. 더 이상 돌아다닐 힘도 없고, 더 이상 엄마가 갈 만한 모임도 없는 것 같았다. 엄마, 어디로 간 거야! 이번 주말은 홀로 지내야 하는 운명인가 보다. 에휴,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5.

엄마도 못 찾고, 주말도 다 가고, 춥고 배고픈데 서럽기까지 했다. 엄마의 지령이 적힌 쪽지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향했다. 엄만 정말 너무해! 이렇게 찾아다녔는데도 없다니, 대체 어딜 간 걸까? 엄마가 돌아오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매일 하는 착한 딸이 되어야겠다. 아, 매일은 좀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 대림마트/흥원철물점은 덕산면에 위치해 간디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주 찾는 단골가게다.

코를 훌쩍이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 끝을 맴돌았다. 엄마다!! 현관문을 여니 엄마가 요리를 하며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갓 한 따뜻한 밥에, 방금 볶은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까지! 하루 종일 찾아다녔던 엄마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내 물골을 보고 깔깔 웃더니 찾아느라 고생했다면서 따뜻한 밥을 차려 주었다.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 만날 모임에 다녀도 괜찮

아!! 대신 12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해!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행복한 주말을 보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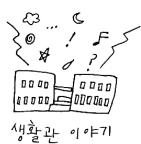
취재와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경당, 풍물패, 동양철학, 꽃다방 덕산 주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

3부



생활관 이야기 : 안방마님
화제의 인물 : 기대하시라! 역대급 화보
♥초딩 민석이의 일기♥

김민석, 박성현, 이예슬



네일아트 좀 하는 마님들

오늘도 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예슬 기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잠시 쪽잠을 자는 이 기자의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다. 초췌한 얼굴과 추레한 옷차림을 보니 백수라고 해도 믿을 듯하다. 그 중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손톱이 유독 눈에 띈다. 아무 색도 없이 칙칙한데다가 울퉁불퉁하게 깎인 손톱, 건조하고 거친 손을 보자니 안쓰러움에 눈물이 고일 정도다. 마감을 지키기 위해 예뻐조차 포기해 버린 그녀를 위해 일상다반사의 기자들이 머리를 모았다. 오랜 고민 끝에, 편집장이 취재를 핑계로 이예슬 기자를 보낸 곳은 바로! 교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6학년 언니들의 네일숍, 안방마님이다! 과연 이예슬 기자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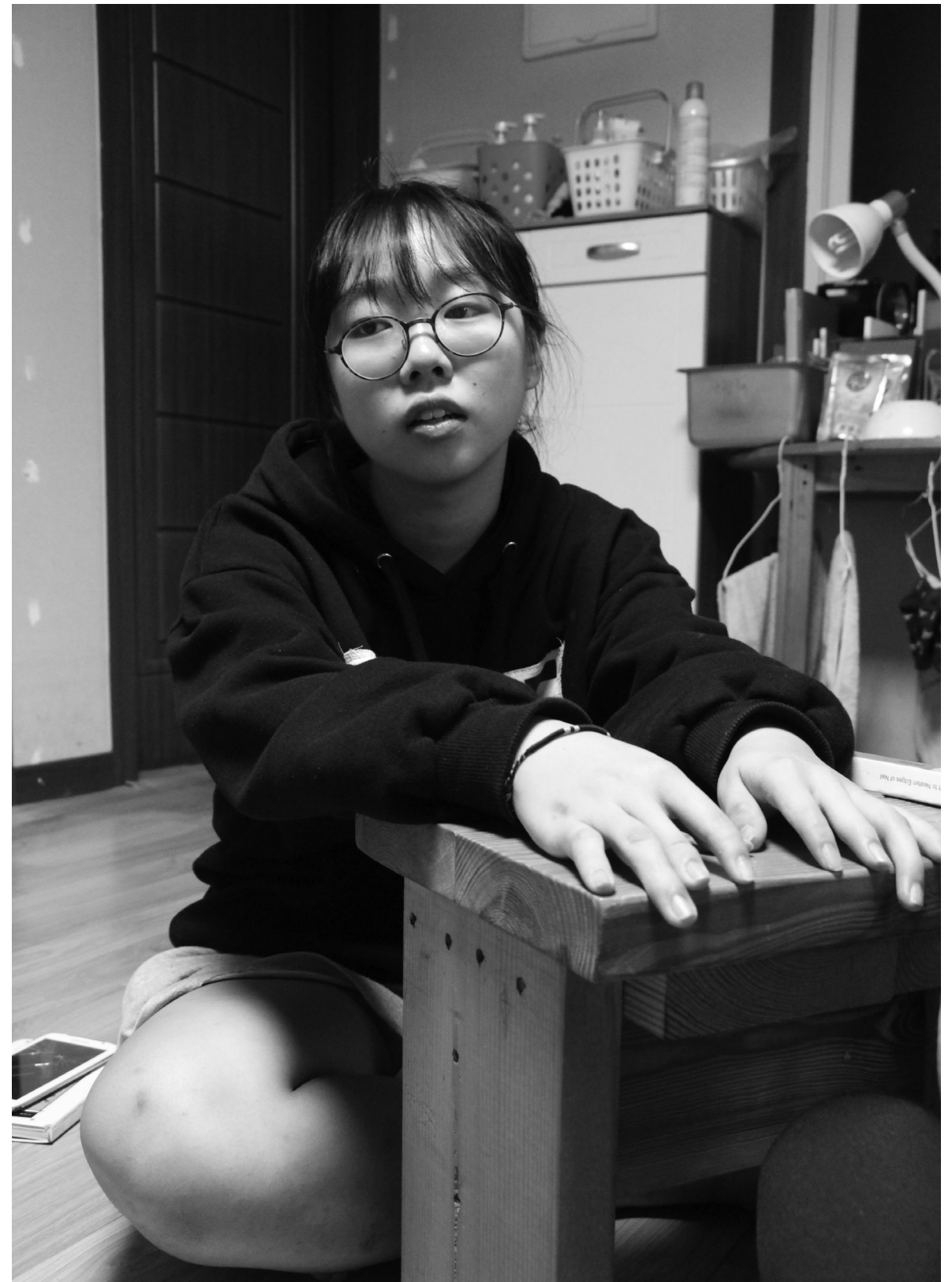
취재노트 1. 안방마님 인터뷰하기-9월 22일

이번 기획회의에서 결정된 내 기사는 6학년들이 힘을 모아 운영 중인 네일숍 겸 브로우바¹⁾, 안방마님. 네일아트와 눈썹 정리라니,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난 프로 기자! 어디든 취재할 수 있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다.

가장 먼저 나를 맞아 준 것은 안방마님의 안방마님, 김채현 양(6학년)이었다. 안방마님은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 보자,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며 해맑게 대답하는 김채현 양을 얹혀 두고 본격적으로 안방마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안방마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아주 소소했다. 바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하지만 돈 없는 학생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먹기에 세상은 너무 각박했다. 6학년 여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좀 해 보자’며 머리를 모았고, 팔찌 만들어 팔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본 끝에 사전 준비 없이 가장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네일아트로 정한 것이다.

사실 ‘안방마님’은 원래 6학년 여학생들과 남자 사감 쌤인 수진 쌤이 같이 놀러 다니자고 만든 모임이었다(비록 한 번밖에 못 갔지만). 그래서 처음 네일아트를 하자고 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안방마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게 김채현 양의 설명이다.



1) 눈썹을 정리해 주는 곳을 말한다.

현재 안방마님에서 실제로 네일아트를 해 주고 있는 건 대부분 김채현 양과 전진 양이고, 안현선 양도 가끔 발라 준다고 한다(나머지 멤버들은 미리 발라져 있는 매니큐어를 지워 주거나 손톱 관리 등 다른 일을 도와준다고 한다). 김채현 양은 멤버들 중 네일아트를 잘 하는 사람으로 안현선 양을 뽑기도 했다. 이유는 손톱에 그림을 잘 그려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안현선 양의 네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받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정말 마음에 든다며 만족해했다.

또한 나는 김채현 양에게서 대단한 영업 기밀을 캐낼 수 있었다. 바로 네일아트를 잘 하는 팁! 김채현 양은 본인도 수전증이 있다며 솔직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도구를 짧게 잡고 쓰면 조금 더 쉽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나저나 도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여태까지 네일아트하는 데에 매니큐어 말고도 필요한 게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안방마님의 거처에 찾아가 보니 붓, 도트봉²⁾, 파일³⁾ 등 정말 다양한 도구가 구비되어 있었다. 김채현 양에게 살짝 물어 보니 대부분 전진 양의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한별 양과 강도운 양은 전진 양이 어딘가에 꽃히면 무조건 다 모으는 성향이 있다며 살짝 귀띔해 주었다. 고급 정보 입수!

안타깝게도 안방마님의 현재 상황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일요일마다 하는 기숙사 회의에서 ‘많이 오세요~’ 하고 알람을 하면 사람이 몰렸다가, 평일이 되면 줄어드는 식이다. 하지만 김채현 양은 ‘그래도 돈을 꽤 벌었다’며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엔 우리 돈 안 들이고 뭐 하나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뻐했다.

인터뷰를 하는 김에 안방마님의 목표까지 함께 정하고 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양문형 냉장고를 노리고 있었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은 탓에 포기한 이후로 특별한 목표가 없었다고 한다. 새 목표를 정하자고 부추기자, 현장에 있던 세 멤버는 의논 끝에 덕산에서 가장 만만한 메뉴 ‘치킨’을 외쳤다. 무려 1인 1닭을 목표로 정한 이들은 ‘비록 학교생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해서 7마리(6학년 여학생이 총 7명이다)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굳게 다짐했다.

취재노트 2. 안방마님 네일아트 경력 조사

말년을 보내느라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네일을 연습 및 시연해 온 안방마님. 그들이 과연 무슨 네일을 했을지 간략하게 조사했다. 종류별로 분류하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다.

1. 캐릭터 네일

고객이 학생인 만큼 귀여운 캐릭터 네일을 많이 하는 듯했다. 미니언, 엘모, 쿠키몬스터, 설리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시도했다고 한다.

2. 패턴 네일

체크패턴처럼 간단한 네일부터 가족 구성원을 떠올리며 패턴화한 네일까지 독특한 패턴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색깔과 모양에 따라 저마다 다른 분위기가 나는 패턴 네일 역시 인기 상품!

3. 펠 네일

단조로운 네일보다는 반짝반짝 예쁜 펠이 들어간 네일이 더 예쁜 법. 단색 위에 펠만 발라도 포인트가 되지만, 어두운 계열의 색 몇 가지를 그라데이션하고 그 위에 고운 은색 펠을 발라준 뒤, 달 모양까지 얹어서 완성한 ‘우주 네일’은 전진 양(6학년)의 회심작이기도 하다.

4. 단색 네일

아무래도 그냥 바르면 심심하다 보니 열 손가락을 다 단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패턴 네일을 할 때 모든 손가락에 같은 패턴을 넣지 않고 중간에 두세 개 손가락은 단색으로 발라 주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네일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 예뻐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나조차 네일아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취재노트 3. 직접 체험하기

결국 안방마님의 네일아트를 직접 받아 보기로 했다. 김채현 양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 손톱 관리부터 받았다. 손톱을 이리저리 갈자 둥글둥글 예쁜 모양으로 변신. 그 상태 그대로 매니큐어의 착색을 막고 지속력도 높

2) 동그라미를 찍을 수 있는 도구.

3) 손톱을 갈아서 모양을 내거나 표면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

여 주는 투명 베이스 코트를 바른 뒤 본격적인 네일아트에 들어갔다.

무슨 색을 쓸까, 한참을 고민하던 중 눈에 띈 색은 분홍 계열. 자주색과 연분홍색, 채도가 조금 더 낮은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패턴을 정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 체크무늬가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타탄체크⁴⁾’. 가을에 자주 입는 남방 무늬와 비슷한 패턴이어서 그런지 가을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았다.

그런데 한 손가락을 바르고 나니 눈에 또 들어오는 색이 있었다. 바로 올리브색과 청록색. 김채현 양과의 의논 끝에 결국 다른 손은 이 두 가지 색을 이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 색만으로는 어두울 것 같아서 금색의 자글자글한 펄까지 더하니 금상첨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손톱이 되었다.

이런저런 수도도 떨고, 네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취재해 본 적은 없는데, 역시 나는 프로 기자. 손톱을 말끔하게 말린 후 형광등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더욱 예뻐다. 이전의 그 못생긴 손톱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김채현 양의 배웅과 함께 안방마님의 거처를 나서면서 나는 이번 기사가 대박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편집장님, 이번 기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일아트를 마친 이예슬 기자의 손톱은 평소의 칙칙하던 손과 다르게 정말 반짝였다. 손톱이 예뻐진 이예슬 기자는 더 이상 마감에 시달려 초췌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다음날 이예슬 기자를 본 편집장이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 자빠졌다는 이야기도 살짝 전해 본다.

오늘의 부록으로는 안방마님의 네일아트를 올린 인스타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아마 아래 사진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기숙사 사랑채⁵⁾를 향해 달려가고 싶을 것이다. 🍷



4)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체크무늬로, 체크가 여러 겹으로 겹쳐진 형태다.
5) 기숙사 본관 옆의 작은 별관으로, 현재 6학년 여학생들이 머물고 있다. 안방마님의 거처이다.



사랑, 개나 쥐 버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번 가을 호 화제의 인물은 고독과 외로움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연애 시켜 주고 싶은 남, 여’란 주제로 뽑았습니다.

그리하여 간디인들에게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두 명의 화제의 인물은 바로… 3학년 김태은 양과 1학년 이태훈 군입니다!!!(박수~ 짹짹)

이번 화제의 인물 화보가 정말 역대 급으로 씨네21 화보처럼 잘 나왔다는데,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 봅시다!

기자: ‘연애 시켜 주고 싶은 남, 여’란 주제로 화제의 인물에 뽑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태은: 짹짹합니다. 이 주제에 뽑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태훈: 우리 반 애들이 몰빵을 해서 걸린 느낌이 들어요.

기자: 주변에선 연애를 시켜 주고 싶어서 난리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요?

태은: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도 연애 안하면서 진짜로 시켜 주고 싶으면 시켜 주든가, 안 시켜 주면서 이런 거에나 뽀히게 하고.

태훈: 장난 식으로 한 느낌이 들어요.

기자: 정작 본인들은 연애 욕구가 있나요?

태훈: (단칼에) 없어요.

태은: 학교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학교에 없으면 학교 밖에는 있습니까?

태은: 학교 밖에… 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학교에 있다 보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기자: 연애 욕구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요즘 관심 가는 이성은 있나요?

태훈: (단칼에) 없어요.

기자: 태훈이는 이번에도 단칼에 대답하네요.(웃음) 전혀 없어요?

태훈: 네, 없어요.

태은: 저도 연예인 말고는 딱히 없네요.

기자: 굉장히 삭막한 사람들이네요. 이래서 ‘연애시켜 주고 싶은 남, 여’에 뽑힌 것 같아요.

태은: 아니 꼭 이성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 우정, 의리도 사랑이죠! 으헤헤!

기자: 태훈이도 그래요? 우정, 의리?

태훈: 저는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팬찮은데.

기자: 하긴 그렇죠. 뭐든 외롭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연애하고 싶은 거죠.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과거 연애경험은?

태훈: 전 없었어요.

태은: 과거라 해 봤자, 여기 아니면 초등학교 때잖아요. 어, 저 초등학생 때 있습니다! 그분 인기 많았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문자만 했습니다. 문자로는 굉장히 친했는데, 실제로는 쑥스러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줄 건 다 줬어요. 서로 초콜릿 이런 거 다 줬어요.

기자: 문자로 주로 무슨 얘기를 했나요?

태은: 아아아!!! 안 돼! 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거!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야의 종소리 들으러 갔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나요.

기자: 만약 연애를 하면 어떤 연애를 하고 싶나요?

태은: 전 오글거리는 건 싫습니다. 저는 안 오글거리고 친구처럼 하는데 서로 진짜 좋아하는 거요. 안 사귀는 것 같은데 서로만 엄청 좋아하는 거. 근데 막상 사귀면 모르겠죠.

태훈: 그런 생각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음… 너무 어색하지 않은 연애를 하고 싶어요.

기자: 자신의 이상형은?

태은: 이상형은 아닌데 좋은 사람. 저는 팬으로서 방탄소년단¹⁾이 좋습니다. 잘생겨서도 좋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재밌어서 좋고… 재밌는 남자 좋아해요. 유재석!

태훈: 한 번 봤는데 딱 끌리는 사람.

기자: 연애 얘기를 떠나서 각자 요즘은 뭐하고 지내나요?

태훈: 주제 프로젝트²⁾ 때문에 할 게 많아서 빈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바쁘지도 않아요. 다른 조들 주제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태은: 논문³⁾ 밖에 안 해요. 주제가 천연제품 만들기라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헤어 팩, 트리트먼트를 만들고 있는데 린스, 헤어 제품 같은 겁니다.

기자: 같이 인터뷰도 하고 화보도 찍었는데 서로 어떤 것 같아요?

태훈: 잘 모르겠어요.

태은: 내가 잘 말할게. 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신비주의 정말 정말 이성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태훈: ……

태은: 할 말을 잃은 것일 수 있어. 아니야. 나쁜 뜻은 아닐 거야. 그치?

기자: 화보 촬영 소감은?

태은: 저는 완벽하게 다시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오히려 본인(사진 기자 박성현, 글 기자 김민석)들이 더 바빠 가지고 막, 막 빨리 빨리 하라고 하고 뛰어다니고 소품도 내가 막 들고 다니고, 자기들이 바빠서 부족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요.

태훈: 의외로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영동한 김태은 양과 시크한 이태훈 군,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와 화보 촬영 감사합니다. ‘연애 시켜 주고 싶은 남, 여’로 뽑힌 사람들이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꼭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랍니다.~☺

번외: Play list!

-평소 즐겨듣는 노래

태은: 키네틱 플로우 - 〈몽환의 숲〉

태훈: 송민호 - 〈집〉

-좋아하는 아티스트

태은: 방탄소년단

태훈: 없음.

-기분 좋을 때 듣는 노래

태은: 마이클 잭슨 - 〈Feel So Good〉

태훈: 혁오 - 〈위잉위잉〉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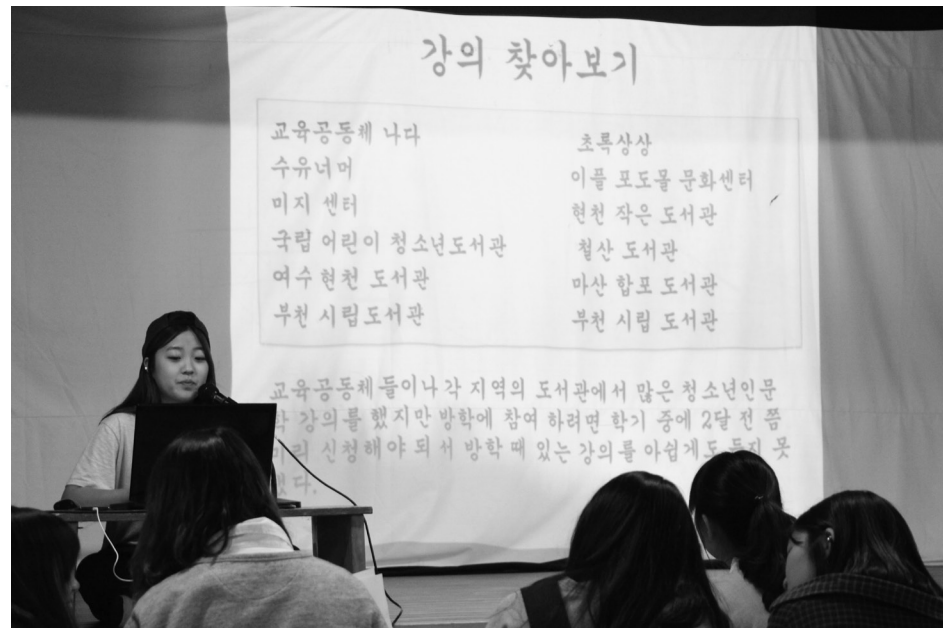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가해시... 가해시... 가해시...	2 수업시작	3	4 상영관 소풍 사육면제인양 비	5
6	7 도파기 시자 모인 가련회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뻗고 웃음꽃 피움	8	9	10	11	12
13	14 리아바 밭이	15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16 노무장가 밭포 + 민회이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부른서들을 편합니다.	17	18 정월과 소풍 달마다	19 리아바도 소풍 (달마다) 달마다
20	21	22	23	24 가정=아름! 너도아름! 너도아름!	25	26 안가영미 가아라-!
27	28	29	30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모두들 샅이 뽀글 뽀글합니다.	2 다만안곡 한마당 3	3		
4	5	6	7	8	9 한글날 기념 ABC	10 가정=아름! 가정=아름!
11	12	13	14	15	16 1등학년 소풍 에 버려드려!	17
18	19 2학년 다들바라 가는 나	20 사기디 음악제 이벤트는 금요일에서 합니다	21	22	23	24 고등 삼강대회 삼강대회
25	26	27 노무장 조이중	28 바람표!	29	30 2학년 소풍 88	31 3학년 눈이공공인 가는 나

2015년 9월 16일



오느른 3학년 언니오빠들 논문

중간 발표였따. 문말했는지는 잘

모르게지만 그냥 멋있었다. 진

짜 발표도 보러 가야지.

2015년 9월 16일



아 슬퍼도 있었따. 오늘 어쨌든 아저씨

가 조크라이트에 인생 얘기를 해

줬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언니오빠들이

노래도 불렀다. 재밌었따.

2015년 10월 3일 



오늘 ^아대안교육한마당 갔다. 언니
오빠들이 지방친구 집에서 막 ^한가
이거저거 다 ^한다. 재밌는 하루
였다.

2015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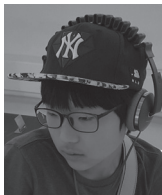
날씨도 짱 좋고 기분도 짱! 축제
신난다~ 친구들이 조선시대라
함복 입은 사람도 보았다. 5학년 언
니오빠들이 집적 준비해서 더 짱!!



박우제 신입 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신입 기자 박우제입니다!
진짜 한 거 없고 지켜만 봤는데, 가을 호가 나왔네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하 신입 삽화 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신입기자 김재하입니다! 앞으로 멋진 삽화 많이 그리겠습니다!
다음 겨울 호에서 뵈요!!



김담 사진 기자(1학년)
가을 호도 여름 호보다는 아니지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여름 호 때는 많이 쉬면서 찍어서 그런지 잘 나온 거 같았는데, 이번에는 주프 하다가 찍고 늦게
찍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온 거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한결 기자(2학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 호가 나오게 되네요. 제가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모를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래도 제가 쓴 글이 재밌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사 쓴 2부 팀 수고하셨고,
신입 기자들도 들어온 만큼 더 힘내서 겨울 호 때 찾아뵙겠습니다.



최유경 기자(2학년)
이번 호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같이 기사 쓴 예림 언니와 이한결이 많이 도와준 덕인 것
같습니다. 겨울 호에서 뵈요!!



이영경 삽화 기자(2학년)
이번 호는 특히 더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삽화 기자 선배가 되었으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형 사진기자(2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냄새나지만 편하게 한 거 같네요. 후원인 인터뷰 때문에 문밤도
빠지고ㅜ 성현 언니랑 담이한테 미안하네요.
계속 카메라 빌려 준 성현 언니랑 명아 언니 고맙고! 1부 채은 언니, 한슬 언니 수고했어~!!!



박성현 사진 기자(3학년)
음...ㅋㅋㅋ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 호가 끝났어요
이번 호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도 않던 것 같고, 화보도 나름 잘 나와서 뿌듯했어요ㅋㅋ
다만 막판에 사진을 두고 할머니 집에 내려지만 앉았다면 완벽했을 텐데ㅋㅋ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 만나요!



이한슬 기자(3학년)
이번 호는 재밌었어요!! 재밌게 인터뷰해 주신 이재웅 후원자님 감사드려요!!! 다행히 마감을
1분 앞두고 지켜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ㅎㅎ 다음 호도 열심히 쓸게요ㅋㅋㅋ 이번 호 같이 쓴 채은
언니랑 문형이 진짜 고마워♥



이예슬 기자(4학년)
아마 역대급으로 마감을 지킨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한 편집장 민석이와 사진 기자 성현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박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으쌔으쌔 힘내요! 그럼,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아, 태은이와 태훈이의 역대급 화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가원 기자(5학년)
드디어 가을 호가 끝났습니다, 마감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마음 놓고 있었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일
상다반사 회의를 늦으면서까지 스캔을 뜨게 되었습니다ㅠㅠ 다음 호는 마지막이니까,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네요!



손채은 기자(5학년)
아, 뭔가 여유롭게 지나간 가을 호 같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항상 일상다반사는 절 지치게 만들
죠ㅠ-ㅠ. 뭔가 나보다 더 수고한 것 같은 한슬이! 논문 열심히 써서 부디 1차 통과하길 빌고, 문형
이도 수고했어~ 다음 호가 제가 쓰는 대망의 마지막 호가 될 것 같은데, 부디 순탄하게 잘 넘어가고
잘 정리하길 빕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김예림 기자(5학년)
또 마감을 했네요... 같이 기사 쓴 한결이랑 유경이 수고했어요~
다신 2부에서 만나지 말자ㅋㅋ



김민석 편집장(4학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편집장이란 일이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래도 편집장이란 게 기자와는 다른 재미도 있어서 즐겁습니다. 겨울 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Philippines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함께하는 필리핀 공정여행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루손섬 중북부에는 2천년 간 계단식 논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푸가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만납니다.

이촌향도와 급격한 관광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계단식 논을 복원하는

작업에 참여해보고 필리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시빈민지역이라고 불리우는 바공실랑안에서는

어린이 공부방 활동 및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편견을 넘어 그들과 친구가 되는 여행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만세로 요청하시면 상세한 내용의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